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화면을 보여 주며) 여러분,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가 보이시죠? 왼쪽 제품은 일부가 삭아서 망가져 버렸지만, 오른쪽 제품은 광택이 나면서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슨 방부제라도 바른 걸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런 차이는 오른쪽 제품에 칠한 전통의 천연 방부제인 ‘옷칠’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옷칠에 대해 개념, 종류, 역사, 현대적 계승 방향 등의 순서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옷칠’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 영상을 보여 주며) 첫째, 보시는 것처럼 물건에 칠하는 원료나 약재로 쓰기 위해 옷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이르는 말입니다. 둘째, 제품에 옷나무 수액을 바르는 일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옷칠은 방충, 방수와 방습 등 다양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옷칠은 나무뿐 아니라 나전, 금속, 가죽 등 다양한 재료에 사용되는데, 사물에 옷칠을 해서 만든 모든 제품을 ‘칠기’라고 부릅니다.

옷칠은 ‘생칠’과 ‘정제칠’로 나뉩니다. 옷나무에서 수액을 얻어 불순물을 천으로 걸러 낸 것을 생칠이라고 합니다. (㉢ 영상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생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면 정제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옷칠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은 표면에 옷칠을 한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우리나라 옷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이때부터 옷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라 시대에는 칠전이라는 관청을 두어 옷칠을 관장했고, 고려 시대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다양한 옷칠 공예가 발전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옷칠 공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옷나무를 국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 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에서처럼 현대로 오면서 옷칠은 합성 방부제, 인공 도료 등이 개발되어 예전보다 그 역할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옷칠은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친환경적인 도료라는 점, 전자파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옷칠 공예 분야를 중심으로 옷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 장식에 옷칠을 활용하여 주목을 받은 사례와 같이 옷칠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앞부분에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환기해야겠어.
- ②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겠어.
- ③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해야겠어.
- ④ 발표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2. ㉠ ~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옷칠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옷칠을 하지 않은 제품에 옷칠을 한 후 생기는 변화를 보여 준다.
- ② ㉡: 옷칠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옷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두 종류의 옷칠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기 위해 생칠에는 없는 정제칠의 가공 과정을 보여 준다.
- ④ ㉣: 옷칠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옷칠 사용이 확인된 시대별 유물을 함께 보여 준다.
- ⑤ ㉤: 옷칠 계승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옷칠 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한데 모아 보여 준다.

3.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청중 1:** 나도 발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옷칠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공예품에 활용된 옷칠을 패션 디자인 등에 응용한다면 옷칠 공예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청중 2:** 발표를 듣고 나전칠기의 칠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 할머니 댁에서 오래된 나전칠기를 본 적이 있는데, 나전칠기와 같은 옷칠 공예 작품에서 옷칠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청중 3:** 옷칠이 가진 뛰어난 전자파 흡수력이 어떤 제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옷칠 공예 분야가 발전하려면 옷칠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 ① ‘청중 1’은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군.
- ② ‘청중 2’는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지어 발표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밝히고 있군.
- ③ ‘청중 3’은 발표를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군.
- ④ ‘청중 1’과 ‘청중 3’은 발표에서 소개한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군.
- ⑤ ‘청중 2’와 ‘청중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군.

[4 ~ 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토론에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오늘은 '학생회장 선거를 1학기 말에 실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2학기 말인 12월에서 1학기 말인 7월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 말에 학생회장을 2학년 중에서 선출하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임기로 하는 학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학생회장들은 대입 전형이 실시되는 2학기에 입시 준비의 부담으로 인해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2학년이 2학기부터 학생회장 임기를 시작하면 이런 부담이 덜하므로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1학기 말은 학교에 큰 행사가 없는 여유로운 시기이므로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실시하여 그들이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인근의 학교에서는 1학기 말에 학생회장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셋째, 2학기부터 2학년인 학생회장이 활동을 시작하면 3학년의 졸업으로 인한 학생회의 단절 문제를 극복하여 학생회의 연속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 2:** 2학기부터 2학년 학생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학생회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 [A] 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1:**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학생회장은 항상 선배가 졸업한 후에 임기를 시작하여 믿고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전임 3학년 학생회 임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회의 연속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한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지금처럼 2학기 말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학생회장의 임기는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회장이 3학년으로서 1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우선 선배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말에 2학년 중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여 2학기부터 활동을 하면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의 알력이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둘째,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장이나 부반장이 학생회장을 겸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학기 때 학생회장의 자질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반장이나 부반장으로 선출되면 마땅한 학생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 입시가 3학년 학생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학생회장의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부터 학생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1:** 방금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대학 입시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반대 1:** 예를 들어, 3학년 임원들이 활동하기가 힘든 2학기에는 1학기 동안 학생회 활동을 경험한 2학년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학생회를 이끌면서 필요할 때마다 3학년 임원들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학년 임원들의 입시 부담도 덜 뿐 아니라 2학년 임원들도 학생회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 후 과제 : 찬성 측 입장을 지지하는 글쓰기

(나) 학생의 초고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학생회 활동을 조례로 제정할 만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생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3학년 임원들이 대학 입시 준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생회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높이겠다는 선거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장의 임기가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2학년 1학기 말에 차기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2학기부터 새로 선출된 학생회장이 차기 학생회를 이끌 수 있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학기 말에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 큰 행사가 없는 시기에 새로운 행사가 생겨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시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공약 발표만이 아니라 후보자 간의 공개 토론 실시 등 색다른 선거 문화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뽑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2학년이 2학기부터 학생회장을 맡게 되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의 알력으로 학생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오히려 선배들에게 틈틈이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학생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선배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조율해 가는 과정 자체도 학생회의 자율성을 기르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4.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전임 학생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학생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 ② '찬성 1'은 인근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학생회장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전후 학생회장 간의 의견 차이로 선후배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학생회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학생회장의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5. [A]와 [B]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인신공격성의 발언을 함으로써 상대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선부르게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③ [A]와 [B] 모두 상대측이 언급한 쟁점의 허점을 문제 삼지 않고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두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함으로써 상대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골라 답변하게 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 주장의 오류를 검증하지 못하고 상대측에게 자기주장을 보충하는 추가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선거 시기 변경이 새로운 선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 ㉠
-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겠어. .... ㉡
- 반대 측이 우려하는 바가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겠어. .... ㉢
- 지금까지의 학생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점에 찬성하는 근거로 활용해야겠어. .... ㉣
-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학생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 <조건>을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한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조 건 > —

- 속담이나 비유를 활용할 것.
-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할 것.

- ① 손바닥 뒤집듯이 기존의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② 현재의 학생회장 선거 시기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 ③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하듯이 문제점을 인식한 이 시점이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바꿀 적절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학생회 임원 구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⑤ 선거 시기의 변경으로 전후 학생회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장 선거 시기 변경보다는 학생회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비즈쿨 캠프를 소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요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를 청소년 비즈쿨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신문에 비즈쿨 캠프를 소개하게 되었다.

비즈쿨(Bizcool)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길러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3일 간의 짧은 시간에 창업의 전 과정을 모의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캠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캠프 첫날에는 기업가 정신 역량 진단을 통해 진취성과 혁신성 등의 기업가적인 요소를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팀별 아이템 구상과 가상 기업 설립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다음날에는 회사 운영 계획 수립,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방법 등을 체험한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한 팀별로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 발표,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한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팀으로 뽑히면 글로벌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비즈쿨 캠프는 청소년들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인 K-스타트업을 방문하면 비즈쿨 캠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 보기 바란다.

8.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이 되는 정보를 일정별로 제시해야겠어.
- ② 독자에 대한 바람을 언급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③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밝혀 주어야겠어.
- ④ 전문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려야겠어.
- ⑤ 독자에게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겠어.

9. <보기>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순위	비즈쿨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비율(%)
1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56.2
2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몰라서	25.7
3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9.6
4	필요성이나 흥미를 못 느껴서	8.5
합계		100

- ① 학교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활용한다.
- ② 비즈쿨 캠프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음을 지적하는 데 활용한다.
- ③ 정부 지원의 창업 관련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활용한다.
- ④ 비즈쿨 사업의 참여가 실제 창업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데 활용한다.
- ⑤ 비즈쿨 캠프의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지 못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10. 다음은 학생이 ‘조언’에 따라 [A]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조언	[A]에는 ( ㉠ )하고, ( ㉡ )하는 것이 좋겠어.
----	--------------------------------



고친 글	비즈쿨(Bizcool)은 일(Business)과 학교(School)의 합성어인데,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

- ① [ ㉠: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  
㉡: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
- ② [ ㉠: 필요한 조사가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그것을 추가  
㉡: 어법에 어긋난 단어가 있으므로 이를 바르게 수정
- ③ [ ㉠: 문단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마무리 문장을 추가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
- ④ [ ㉠: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필요한 성분을 추가  
㉡: 앞의 문단에서 다룬 내용이 중복되었으므로 이를 삭제
- ⑤ [ ㉠: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  
㉡: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므로 연결 표현을 추가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가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한다.

격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준다. ‘이/가’와 같이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주격 조사도 있고, ‘을/를’과 같이 목적어가 되게 하는 목적격 조사도 있다. 또 ‘의’와 같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관형격 조사도 있고, ‘이/가’와 같이 ‘되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 보어가 되게 하는 보격 조사도 있다. 그밖에 ‘에’, ‘에서’, ‘(으)로’, ‘와/과’, ‘보다’처럼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부사격 조사와 ‘아/야’와 같이 독립어 가운데 부름말이 되게 하는 호격 조사 등도 격 조사에 속한다. 특히 체언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 보조사에는 ‘은/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 쓰인 ‘은’은 체언에 붙어서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또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에 쓰인 ‘도’는 활용 어미 뒤에 붙어서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한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나’, ‘(이)랑’ 등이 있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에 쓰인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그런데 ㉠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사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또 ‘에’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과’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두 단어나 문장 따위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또 ‘에서’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 철수야, 내일이 무슨 날이니?  
 ㉢ 이번에 성적이 많이도 올랐구나!  
 ㉣ 언니가 동생의 간식을 만들고 있다.  
 ㉤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샀어요.

- ① ㉠의 ‘이’는 체언인 ‘인물’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② ㉡의 ‘이니’는 체언인 ‘날’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③ ㉢의 ‘도’는 부사인 ‘많이’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
- ④ ㉣의 ‘의’는 체언인 ‘동생’에 붙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⑤ ㉤의 ‘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12. 밑줄 친 조사 중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 ② 친구마저 미덥지가 못하다.
- ③ 그녀는 장미를 좋아하다.
- ④ 그는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었다.
- ⑤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깬다.
- ⑥ 그까지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 ⑦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 ⑧ 그는 다섯 살 아래의 여성과 결혼했다.
- ⑨ 너는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 ⑩ 우리 학교에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1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의 단어들을 음운 변동 양상에 따라 둘로 분류할 때,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 알아보시다.

놓는[논는], 닳아[다라], 막일[망닐], 칼날[칼랄]		
질문	㉠	
대답	예	아니요
	놓는[논는], 칼날[칼랄]	닳아[다라], 막일[망닐]

- ①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동일한가?
- ② 자음과 모음의 변동이 모두 일어났는가?
- ③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
- ④ 음운 변동이 앞 음절에서만 발생하였는가?
- ⑤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1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높임 표현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보기 1>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된다.

<보기 2>

영희야,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먼저 나가셨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①	○	○	높임
②	○	○	낮춤
③	○	×	높임
④	×	○	낮춤
⑤	×	×	높임

15.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불·휘기·픈남·근브르·매아·니·뫼·씩  
 [현대 국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용비어천가>

[중세 국어] ·첫소·리·를어·울·워·뵙·디·면·글·바·쓰·라  
 [현대 국어] 첫소리를 합하여 쓸 것이면 나란히 쓰라.  
 <훈민정음언해>

[중세 국어] ·몸·이며·얼·굴·이며·머·리·털·이·며·술·흔  
 [현대 국어]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소학언해>

- ① '기·픈'은 '깊은'과 견주어 보니,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뫼·씩'은 '움직이므로'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군.
- ③ '를'은 '를'과 견주어 보니, 현대 국어와 단어의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군.
- ④ '뵙·디·면'은 '쓸 것이면'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얼·굴'은 '형체'라는 의미였던 것을 보니, 현대 국어로 오면서 단어의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 사조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사르트르(J. P. Sartre)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나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다.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존재(Being in itself)'로, 인간 존재를 '대자존재(Being for itself)'로 각각 명명하였다. 여기서 즉자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에 대자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존재(Being for others)'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라는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이때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타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서,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

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 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상화: 자기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밖에 있는 것처럼 다룸.

1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장단점  
-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②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발생 배경  
-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을 중심으로
- ③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  
- 본질과 실존의 우선순위 변화를 중심으로
- ④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  
-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⑤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과 한계  
- 자유와 책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17. 윗글의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 ② 선택의 자유가 변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③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유무로 양분할 수 있다.
- ④ 인간은 대자존재이자 대타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 ⑤ 개인과 개인은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18.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가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② 나와 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 ③ 서로가 서로를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④ 나와 타자가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⑤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9. 윗글과 <보기>를 활용하여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참된 자아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키르케고르와 달리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겠군.
- ② 사르트르와 달리 키르케고르는 자아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겠군.
- ③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겠군.
- ④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여겼겠군.
- 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겠군.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

(학생이 선생님과 상담하는 상황)

**학 생**: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 희망을 물어 보면 늘 의사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고2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선생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학 생**: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네 꿈은 네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학 생**: 그렇기는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요?

**선생님**: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부모님도 너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선생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 ①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군.
- ②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존재에 해당하겠군.
- ③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대자존재에 해당하겠군.
- ⑤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풍(淸風)을 좋아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명월(明月)을 좋아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제1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爵祿)\*을 맘에 들꼬.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 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이었소.

<제2수>

상 위에 책을 놓고 아래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불 이 그 뉘고.  
알게라, 어제 맞춘 뜨지술\* 맛보러 왔나보다.

<제3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 내 집에 내 세상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제4수>

산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날날이 흐르느냐.  
처간(處間)\*에 인지(仁智)한 군자는 못내 즐겨 하노니라.

<제5수>

오두미(五斗米)\* 위하여 홍진(紅塵)\*의 나지 마라.  
바람 비 어지러워 칼 톱이 무서워라.  
나중에 슬코 뉘우치나 기구하다 기로다단(岐路多端)\* 하여라.

<제6수>

- 이정, 「풍계육가(楓溪六歌)」-

- \* 작록: 벼슬과 녹봉.
- \* 뜨지술: 의미가 불분명하나 맥락상 '묻어둔 술'로 보임.
- \* 처간: 초야, 궁벽한 시골.
- \* 오두미: 얼마 안 되는 봉급을 비유하는 말.
-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기로다단: 갈림길의 갈래나 가닥이 많음.

(나)

㉢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이 못 되고, 너비는 아홉 자가 못 된다.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갓이 천장에 닿고, 잠을 자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한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래서 둘러친 담장 밑에 박을 10여 개 심었더니, 넝쿨이 자라 집을 가려 주었다.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 떼들이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 등축을 들고 마당을 살펴보았다.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굼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 대는 것이 두렵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 듯 답답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했다.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했습지요. 영남 땅의 나루터, 정자, 역정(驛亭), 여관 그리고 궁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들에 이르기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수령과 보좌 관원이 먼저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결채와 시원한 평상은 아전과 역졸(役卒)들이 차지하지요. 오직 뜨거운 구들과 따뜻한 침상에는 벽을 뚫고 관솔불이 비쳐 들고 대자리를 깎아 빈대를 쫓아내는 곳만이 남게 되지요. ㉤ 그곳만은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으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곳입니다.”

(중략)

그런데 여관집의 노비를 보면 이와 다릅지요.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 말처럼 분주히 오가며 일을 하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아침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지요.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다 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었지만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끔찍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지요. 지금 이 세상은 살아 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중의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지요.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니,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의 여관에서 지내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들볶아 원기를 손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관집의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화옥기’라 하였다.

- 이학규, 「포화옥기(匏花屋記)」-

\* 포화옥: 박 넝쿨로 둘러싸인 집.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고사를 활용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통해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

(가)는 자연 속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처사(處士)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예찬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도모하는 한편, 벼슬길의 위험함을 인식하며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 행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제2수>에서 '작곡'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문'을 늦도록 단아 두는 것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태도라 하겠군.
- ③ <제4수>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자연과의 합일을 지속하려는 마음을 가리키겠군.
- ④ <제5수>에서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자연물의 변함 없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군.
- ⑤ <제6수>에서 '홍진'과 거리를 두며 '칼 톱'이 무섭다고 한 것은 벼슬길의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23.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두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이지만, ㉠는 좌절되는 공간, ㉡는 성취되는 공간이다.
- ② 모두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간, ㉡는 실현 불가능한 공간이다.
- ③ 모두 실제 삶의 공간이지만, ㉠는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는 열악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모두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지만, ㉠는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 ㉡는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⑤ 모두 회상의 공간이지만, ㉠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상, ㉡는 타인의 삶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4.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말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이루어낸 성과를 치하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말에 거짓으로 동조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나)는 작가인 이학규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을 때 창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그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깨달은 바를 드러낸 글이다. 나그네는 자신의 직접 경험, 여관집 노비를 관찰한 모습 등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교훈을 전해 준다.

- ① ㉠: 작가가 얻은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하여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나그네가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여관집의 노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나그네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면역 반응이라 한다.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면역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면역계가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온 환경에서 찾았다. 인체는 무균 지대나 청정 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진화해 왔다.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므로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장(腸)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 수보다 10여 배나 더 많은 장내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이다. 수지상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 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이다.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T세포를 조력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로 분화시킨다.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장내미생물은 조력T세포나 세포독성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 즉 수지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세포를 조절수지상세포라고 부른다. 조절수지상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T세포를 조절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조절T세포는 조력T세포나 세포독성T세포와는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장내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내미생물은 조절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피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 조

절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 이처럼 조절T세포를 만들게 하는 데 외부 물질인 장내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2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 ②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여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③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면역 반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뒤 각각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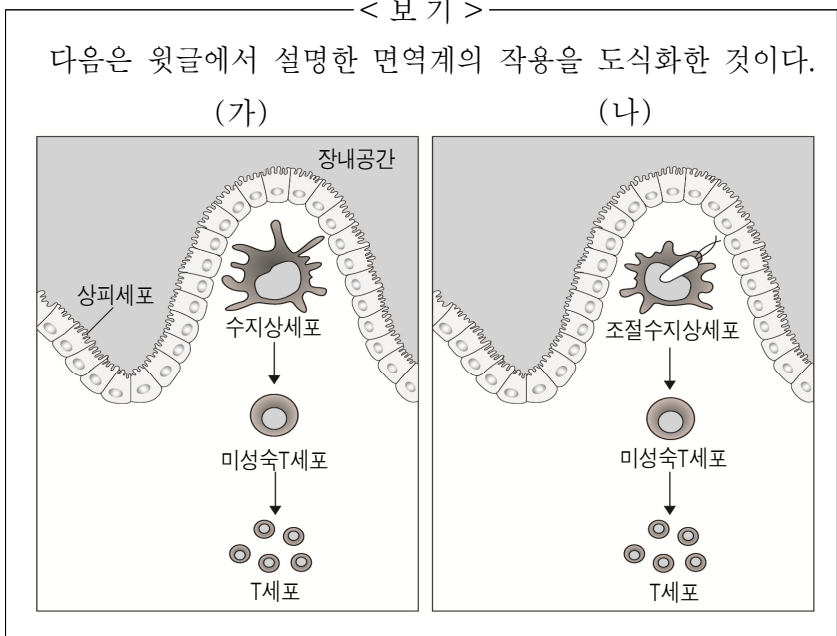
27. 밑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장내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 ②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위생가설에 따른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는 무엇일까?
- ⑤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2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 ②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④ 현대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 ⑤ 장내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수지상세포는 (나)의 조절수지상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한다.
- ② (가)의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 ③ (나)의 미성숙T세포는 (가)의 미성숙T세포와 달리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 ④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30.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보충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최근 기생충이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의 뇌 조직을 관찰한 결과, 그 질병 역시 면역계 과민 반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가 시도되었고, 이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 ①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②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함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③ 인체가 무균 시대나 청정 시대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④ 면역계가 환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⑤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면역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명나라 이익의 아들 대봉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장차 혼인을 약속한다. 이후 대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도술을 익혀 북방 흉노의 대군을 격퇴하고, 애황은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하여 살아가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선우의 군대를 격퇴한다. 다시 만난 대봉과 애황은 결혼하고, 공을 인정받아 초왕과 총렬왕후가 되지만 흉노의 대군과 선우의 군대가 재침입을 하게 된다.

“이 일을 어찌 하리오?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났도다. 전일에 애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깊은 규중에 들어갔으니 한쪽에는 대봉을 보내면 되겠지만 또 한쪽에는 누구로 하여금 막게 하리오? 짐이 덕이 없어 도적이 자주 일어나니 초왕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하니 과도히 슬퍼하지 마십시오. 즉시 초왕만 패초\*하옵시면 왕후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인재이니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즉시 패초하니 초왕이 전교를 보고 크게 놀랐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초왕이 즉시 태상왕에게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월각 투구를 쓰고 용인갑을 입고 청룡도를 비스듬히 들고 오추마를 채찍질하여 그날 바로 황성에 도착하였다. 초왕이 계단 아래에 나아가 땅에 엎드리니, 황제가 초왕의 손을 잡고 양쪽에 장수를 다 보낼 수 없는 국가의 위태로움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초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남북의 강병이 억만이라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마소서.”

즉시 사자를 명하여 총렬왕후에게 사연을 전하였더니, 왕후가 사연을 보고 크게 놀라 화려한 옷을 벗고 갑주를 갖추어 입고 천사검을 들고 천리준총마를 타고 태상 태후 및 두 공주와 후궁에게 하직한 뒤, 천리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달려왔다. 황성에 도착하니 황제와 초왕이 성 밖에까지 나와 맞이하거늘 왕후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황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아뢰었다.

“폐하의 은덕이 오직 우리 초왕 부부에게 미쳤사운데, 불행 [A] 하여 전장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에 군병을 조발\*하여 왕후를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도총독 상장군에 봉하고 인끈과 절월을 주며 군중에 만약 태만한 자가 있거든 즉시 참수하라 하였다. 또 초왕은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하였다. 군사를 조발할 때 장 원수는 황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이 원수는 초나라의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씩 거느리고 행군하여 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치러 가고 애황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떠났다.

이때 애황은 잉태한 지 일곱 달이었다.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나면서 대봉이 애황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원수가 잉태한 지 일곱 달이니, 복중에 품은 혈육 보전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리오? ㉠부디 몸을 안보하소서. 무사히 돌아와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노라.”

이렇게 애뜻한 정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애황이 다시 말하였다. “원수는 첩을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거느리고 가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깨뜨리고 빨리 돌아와 황상의 근심을 덜고 태후의 근심을 덜게 하소서.”

말 위에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이별한 뒤, 대봉은 북으로 향하고 애황은 남으로 향하여 행군하였다.

(중략)

원수가 백금 투구를 쓰고 흑운포를 입고 7척 천사검을 높이 들고 천리준총마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들 때, 남주작과 복현무, 청룡과 백호군에게 호령하여 적진의 후군을 습격하여 무찌르게 하고 자신은 선봉장 골통을 맞아 싸웠다. 싸운 지 반 합이 채 못 되어 원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이어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누비니, 오늘의 용맹이 전날의 용맹에 비해 배나 더하였다. 삼십여 합을 겨룬 끝에 무수히 많은 장수를 무찌르고 선우의 팔십만 대병을 몰아치니,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아나라 하였다. 이를 보고 장 원수가 적군을 여린 풀 베 듯하니,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겁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적진 장졸들이 원수의 용맹을 보고 물결이 갈라지듯 흩어지자, 선우가 이를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장 원수가 지르는 한 마디 고성 속에 검광이 번쩍하더니 선우의 몸이 뒤집히면서 말 아래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에 장 원수가 선우의 목을 베어 함에 넣어 남만의 다섯 나라에 보내었다. 그리고는 여러 장수들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고 백성을 진무\*하였다.

이때 다섯 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는 황금과 비단, 채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항복의 문서를 올리며 죽여 달라고 사죄하였다. 장 원수가 다섯 나라의 왕을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죄를 낱알이 밝힌 뒤 항서와 예단을 받았다. 이어 이렇게 말하였다.

□ “이 뒤로 만일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다섯 나라의 인 [B] 종을 모두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또 물러나 동지(冬至)에 □ 조공 보냄을 지체하지 말라.”

이에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걸하며 선우를 탓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장 원수가 군사를 수습하여 진문관에서 군사를 위로 하며 쉬게 한 뒤, 예단을 싣고 차차 나아가 황성으로 올라왔다. 하양에 이르렀을 때 원수의 몸이 피곤하여 영채(營寨)를 세우고 쉬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더니 혼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 활달한 기남자였다. 3일 몸조리한 뒤 말을 타지 못하여 수레를 타고 행군하였다.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패초: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부르던 일.

\* 조발: 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 진무: 안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랠.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초월적 공간을 통해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32.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에 드러난 인물의 권위가 추락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A]에서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A]에서 시작된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A]에서 촉발된 인물들 간의 오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봉전」은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을 통해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 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한 점,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특징적이다.

- ①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패초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장애황이 규중을 벗어나 전장에 대원수로 참여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장애황이 잉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선뜻 나서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장애황과 이대봉이 각각 남북의 적과 맞서 싸우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4.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을 보니, 무사히 돌아오라고 대봉은 애황에게 ( )하고 있군.

- ① 경거망동(輕舉妄動)                      ② 신신당부(申申當付)
- ③ 애걸복걸(哀乞伏乞)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센병 환자(나환자)의 섬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한다. 소록도 출신으로 섬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 원장의 부임 인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조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 목소리가 흥분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려.”

원장은 이제 좀 맥이 빠진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여유가 만만한 사내였다. 그는 바야흐로 열이 오르기 시작한 상욱을 방해하려 하진 않았다. 맥이 좀 빠진 듯하면서도 이젠 그 상욱을 향해 빙긋빙긋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다.

㉠ 상욱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을 얹으려는 태도였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섬을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대받고 쫓겨 다니며 서러운 유랑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그들의 고향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금지와 보람을 누리자고 격려했습니다. 병사와 의료 시설을 늘리고 생활 환경과 후생 시설을 다시 꾸미자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환자들 자신부터 절망과 비탄에서 벗어나 추악한 유랑 습벽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복지를 스스로 꾸며간다는 자부심과 자활 의욕이 솟아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겠지.”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가 있구만그래. 동상 이야긴 벌써 두 번째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동상이라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요?”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 주위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있었다.

㉢ 상욱의 어조에선 아직도 열기가 속을 줄을 몰랐다.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원장님께서도 벌써 충분히 짐작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보다도 제가 벌써 두 차례씩이나 동상이라는 말을 원장님 앞에서 입에 담게 된 것은 아까 그 원장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동상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정수 이후에도 새 원장님만 갈려 오면 번번이 또 그 원장이 새 동상을, 아니 실인증슨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을 보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낮 원장님을 뵈기 전에 벌써 열 번 이상이나 그곳에 서서 새 원장이 숨겨 가지고 온 주 원장의 동상을 보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 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더러는 성공하고 더러는 실패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남는 것은 배 반뿐이었습니다.”

(중략)

축구 경기를 보급시키고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섬사

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한 조백헌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나섰다.

그러나 ㉣ 섬사람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조백헌 원장이 오랫동안 혼자 가슴속에 숨겨오면서 공을 들여오던 사업 계획을 실현해 내는 데는 아직도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먼저 싸워 넘어서야 할 장벽은 5천여 소록도 주민 바로 그 사람들의 불신감이었다. 축구 시합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은 듯싶던 섬사람들은 원장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다시 또 냉랭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섬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고향을 꾸미기엔 이 섬은 너무도 비좁습니다……”

구름처럼 섬을 뒤덮고 있던 연분홍 꽃무리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고 난 어느 조용한 봄날 오후, 조백헌 원장은 각 마을 장로 일곱 명을 중앙리 공회당으로 불러 모아 놓고 모처럼 그의 사업 계획을 털어놓았다.

“물론 이 일은 지난날 이 섬에 있었던 어떤 다른 역사보다도 더 힘들고 긴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다른 어떤 역사에서보다 그 혜택이 멀고 아득한 곳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기도해 온 약속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마 이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룩해 내고 나서도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배불리 먹게 될 수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원장은 5만분의 1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간척 사업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장로들을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다.

장로들 쪽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바다를 막아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 떨어지면서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장로들의 얼굴 표정은 계속되는 원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았다.

㉤ 원장은 맥이 풀렸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섬에서 이룩해 놓은 것들이 일시에 다시 허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섬으로 부임해 왔을 때의 그 숨이 막힐 듯 깊고 거대한 침묵의 회중 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었던 바로 그 날의 그 회중 앞에 다시 선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

3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인물들의 심리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감각적인 묘사를 통하여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 ④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말을 비웃는 조 원장을 조롱하려는 상욱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됨을 인지한 조 원장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 상욱은 자신의 말을 막으려는 조 원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심사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으나 조 원장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심사사람들과 신뢰가 무너져 간척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 원장의 좌절감이 드러나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록도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나환자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한 주인공은 그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오마도 간척 사업을 추진한다.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하지만,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역학 관계 속에서 뜻을 이루려는 주인공이 권력과 명예욕의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타락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 ① 동상은 이전 원장들의 명예욕과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하겠군.
- ② 조 원장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욱은 작가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조 원장이 축구 경기를 보급한 것은 심사사람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겠군.
- ④ 장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천국을 이루려면 간척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겠군.
- ⑤ 인물들 간의 역학 관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조 원장은 지배자이고 심사사람들은 피지배자라고 볼 수 있겠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 법원은 먼저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배심원의 수를 결정한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그 외의 경우에는 7인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평의\*와 평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인원을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는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개한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해당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에게 배심원선정기일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배심원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합한 수만큼을 추천한다. 이렇게 선정된 '추천된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답변을 듣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에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는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부기피신청'과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유부기피신청'을 먼저 하고, 이것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한다. 다만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이유부기피신청'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인원 제한이 있는데,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각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각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에는 각 3인까지 가능하다.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천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인원만큼 다시 추천하여 배심원후보자를 뽑고 질문과 기피신청을 반복하여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확정한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이 종결되면, 이들은 재판부와 함께 증거조사를 지켜보게 된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과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 등을 설명하고, 배심원 중 누가 예비배심원인지 알려준 후 배심원들에게 평의실로 이동하여 평의를 시작하게 한다. 평의가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하게 된다. 배심원 사이에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평의를 진행한 후 다수결로 평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절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알려 준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와 유죄인 경우 그 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하지만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며, 만약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재판장이 판결 중결을 알리면 배심원의 임무 역시 모두 끝나게 된다.

- \*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 \* 평의: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배심원의 논의 절차.
- \* 평결: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적인 판단.
- \* 양형: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3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제도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제도가 진행되는 절차와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제도의 변화 과정을 언급한 뒤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 ④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39.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비배심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배심원과 함께 수행한다.
- ②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다.
- ③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판결까지 선고하는 제도이다.
- 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하더라도 판결서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렸다.
- ② 선행을 한 경찰관에게 훈장을 내렸다.
- ③ 포장을 줄여서 물건의 가격을 내렸다.
- ④ 차내의 공기가 탁해서 유리문을 내렸다.
- ⑤ 기상청은 전국에 폭풍 주의보를 내렸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다음의 표는 배심원 확정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배심원선정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모두 40명임.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 수	이유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후보자 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후보자 수	확정된 배심원 수
1차	14	3	3	8
2차	6	2	1	3
3차	3	×	×	3

- ① 3차에 걸쳐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모두 확정하였군.
- ② 검사와 변호인 모두 자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만큼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군.
- ③ 추첨된 배심원후보자에게 제기된 기피 이유가 재판부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모두 9명이군.
- ④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 17명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군.
- ⑤ 1차에 추첨된 배심원후보자 수를 볼 때 법원은 이번 재판에 9명의 배심원과 5명의 예비배심원을 두기로 결정했었군.

4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6월의 어느 날 김한국 씨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등기우편을 받았다. 배심원선정기일 아침 △△지방법원을 찾아가 김한국 씨는 검사·변호인과의 질의응답 후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늦은 밤까지 증거조사가 진행되었고, 배심원 교체 없이 진행된 평의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 치열한 재논의 끝에 유죄와 무죄에 대해 각 2:5의 의견으로 평결서를 작성하였고,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① 등기우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김한국 씨는 △△지방법원에서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포함되어 있었군.
- ② 평의와 평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김한국 씨는 예비배심원이 아닌 배심원으로 선정되었군.
- ③ 배심원 수를 감안하면 해당 사건은 법정형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겠군.
- ④ 작성된 평결서를 감안하면 평의 도중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과정 없이 배심원 간에만 논의가 진행되었겠군.
- ⑤ 평결서와 판결을 감안하면 재판부와 배심원 간에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몸통 군데군데 찌어  
흉한 상처 거뭇게 드러나고  
팔다리 여기저기 잘리고 문드러져  
온몸이 일그러지고 뒤틀렸지만  
터진 네 살갓 들치고  
바람과 노을을 동무해서  
어깨와 등과 손끝에  
자잘한 꽃들 노랗게 피어나는데  
비록 꽃향기 온 들판을 덮거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는 못해도  
노란 꽃잎 풀 속에 떨어지면  
옛애기보다 더 애달픈  
초저녁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되겠지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듣는 이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 신경림, 「수유나무에 대하여」 -

(나)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  
㉠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다  
㉢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각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44.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처’ 난 몸통과 ‘문드러’진 팔다리는 수유나무가 겪었던 고난을 짐작하게 하는군.
- ② ‘바람과 노을’은 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존재로군.
- ③ ‘어깨와 등과 손끝’에 꽃이 핀 모습은 ‘온몸’이 뒤틀렸던 모습과 대조적이군.
- ④ ‘산’과 ‘바다’는 수유나무의 ‘꽃향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적지라고 하겠군.
- ⑤ 떨어진 수유나무의 ‘꽃잎’은 ‘풀벌레의 노랫소리’로 변하여 퍼져 나가게 되겠군.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나)의 화자는 식탁에 오른 멸치 볶음을 관찰하면서 멸치가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고 있다. 이 시는 ‘생명의 본래 모습 → 생명력의 상실 과정 → 생명력 회복의 소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 ① ㉠: 멸치가 과거에 바다에서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어.
- ② ㉡: 외부적인 힘에 의해 멸치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 ③ ㉢: 멸치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하고 있어.
- ④ ㉣: 눈앞의 멸치를 보며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어.
- ⑤ ㉤: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